

여수엑스포 비용 지방 떠넘기기

기획재정부, 수백억 분담 요구하며 예산 심의 전면 보류

전남도·여수시 “이의 제기할 것”

정부와 전남도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운영비와 엑스포타운(관리인·종사자 주거지) 조성을 위한 수백억 원대의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2009년도 예산 심의가 전면 보류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열린 '2009년도 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예산 1차 심의' 과정에서 조직위의 운영예산 90억 원 중 30%인 27억 원과 엑스포타운 조성비 중 일부인 525억~875억원(추정치)을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방비로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여수엑스포타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부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3천644억원 가운데 민간매각으로 인한 수익금 1천894억원을 제외한 1천750억원의 30~5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는 지역개발의 수혜를 들어 전남도와 여수시에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박람회 개최와 부동산 개발의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하는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방비 부담 계획안'을 수립해올 때까지 2009년도 조직위예산안 2천500억원에 대한 심의를 전면 보류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도비 분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가에서 운영비와 조성비(사업손실금의 일부)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엑스포타운의 경우 박람회 직접지원시설인 만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원 및 조직위원회 수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에 '국가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신설·개보수 등에 관해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을 뿐 지자체의 분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남도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 운영비 분담 건에 대해서도 도비 분담은 불가하며, 다만 공무원 파견을 통해 간접분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11월 확정된 '박람회 유치 기본계획'에서도 지방비 분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의 지방비 분담 요구는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지방비 부담요구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예정에 없던 수백억원대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가뜰이나 열악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는 다음주 초 서울에서 열린 '박람회 조직위원회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강력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합평골프고 출신 신지애(20)가 4일 영국 서남데일골프장에서 열린 LPGA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브리티시 최연소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3년째 '지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합평골프고 출신 신지애(20·하이마트)가 마침내 '세계의 지존'으로 우뚝 섰다.

〈관련기사 19면〉

신지애는 4일 영국 서남데일골프장(파72·6천408야드)에서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뽐내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정상에 올랐다. 20년 3개월 6일 만에 우승한 신지

애는 지난 2001년 23년 10개월 8일의 나이로 정상에 올랐던 박세리(31)가 갖고 있던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1타차 선두였던 '일본의 소렌스탑' 후도 유리(274타)를 4타차 공동3위로 밀어낸 짜릿한 역전 우승이며 2위 청야니(대만·273타)를 3타차로 따돌린 완승이었다. 우승 상금은 31만4천 달러. 신지애는 이날 우승으로 한 시즌에 한·미·일 3개국 투어 정상에 오

르는 진기록도 보유하게 됐다. 신지애는 박세리, 박지은(29·나이키프로), 장정(28·기업은행), 김주연(27), 박인비에 이어 한국인 여섯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지애는 LPGA 투어 비회원으로서 투어 대회를 우승한 13번째 선수이지만 비회원의 메이저대회 우승은 1987년 US여자오픈 우승자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에 이어 두번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中 올림픽 테러 '초긴장'

신장 위구르자치구 폭탄 공격...무장경찰 16명 사망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4일 중국 북서부 신장(新疆) 지역에서 폭탄테러로 무장경찰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관영 신화통신은 신장 위구르자치구 도시 카스(喀什) 변경지역에서 이날 오전 8시경 무장괴한 2명이 트럭을 몰고 혼란 중이던 무장경찰 부대로 돌진한 뒤 수류탄 2개를 투척, 경찰관 16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괴한 2명은 트럭이 전복대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경찰 병영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망한 경찰관 중 14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경찰 당국은 이 사건이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의 의도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 동기 및 배후 세력 조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신장 자치구의 무장 분리독립운동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이 지난 1일부터 올림픽 개막일인 8일까지 테러공격을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사건은 최근 쿤밍(昆明) 등 중국 각지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사건

이 발생한 데 이은 것이어서 올림픽을 앞둔 중국 공인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는 지난 5월 5일 상하이에서 버스 폭발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연쇄폭발사건, 지난달 17일 윈저우(溫州)시 경찰서 습격사건, 광저우(廣州)시 플라스틱 공장 폭발사건 등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자신을 '터키스탄 이슬람당(TIP)'이라고 자처하는 단체가 상하이, 쿤밍, 윈저우, 광저우 등의 폭발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뒤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이번 테러가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 또는 터키스탄 이슬람당 등이 배후에서 일으킨 사건이 아닐지 주목하고 있다.

이슬람 신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신장 지역은 이슬람 분리주의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연합뉴스

노인 10명 중 7명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

광주·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에서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사별 등에 따른 1인가구로 집계되는 등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다.

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사별 등에 따른 1인가구로 집계되는 등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다.

반면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이 22.5%에 그친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면 함께 거주'(4.5%),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면 함께 거주'(1.3%) 등의 순이었다.

더구나 광주·전남은 65세 미만의 장년층이 '향후 노인이 됐을 때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비율이 각각 77.1%, 77.2%에 달했다. '미래 노인'들의 이같은 반응은 광주·전남의 핵가족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8년 가을 무인출발 히시문

2008년 가을 무인출발 히시문

<p>충청/발파 2일</p> <p>매주 월요일 매주 수요일</p>	<p>충청/공정방목파타이 3일</p> <p>매주 화요일 매주 목요일</p>	<p>충청/코사부이 6일</p> <p>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p>	<p>충청/부엌 6일</p> <p>매주 일요일 매주 월요일</p>
---	--	---	---